

게이문화를 보는 푸코철학의 메시지

데이비드 M. 헬퍼린 지음 《성 푸코 Saint Fouca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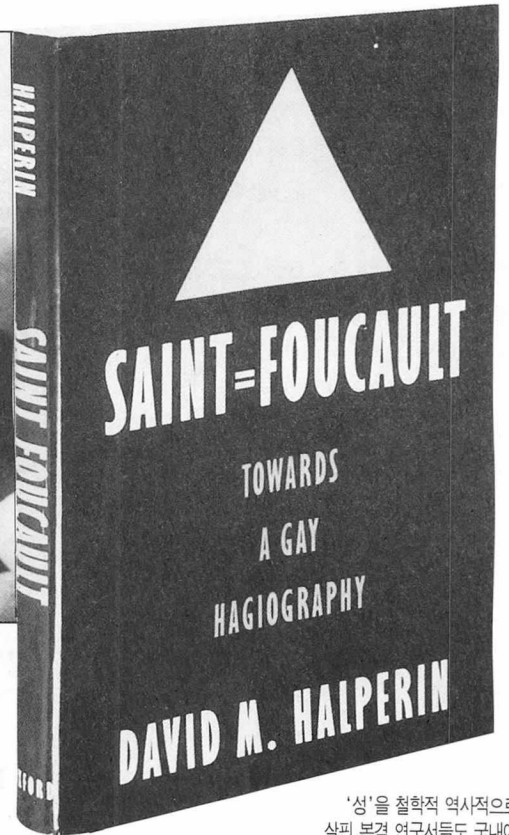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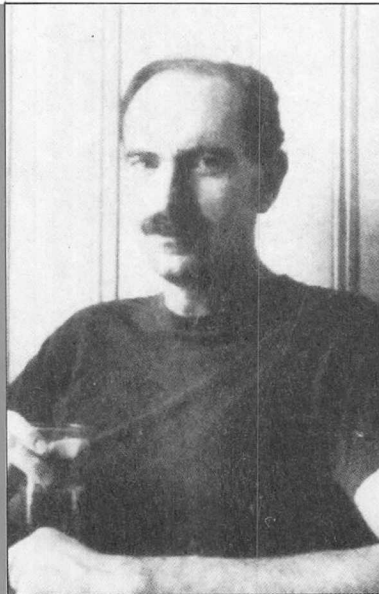
김종엽
한양대 강사·사회학

문화평론가 김성기에 의하면 90년대 한국 지성계는 프랑스제 담론의 그늘 아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은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리다. 우선 한국지성계가 프랑스제 담론의 그늘 아래 있었던 것은 비단 90년대만이 아니다. 이미 50~60년대를 통하여 우리 지성계는 사르트르와 메를로 폰티의 그늘 아래 있었다.

또한 우리만이 알튀세와 푸코와 데리다 그리고 들뢰즈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러하다. 게다가 이들은 충분히 대중적인(비록 그것이 다소 천박한 것이라고는 해도) 호기심을 자아낸다. 그들은 안전한 철학자(이만큼 철학과 거리가 먼 것도 없다) 이상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 레지스탕스 철학자(폰티), 살인자인 철학자(알튀세), 자살한 철학자(들뢰즈), 그리고 동성애자인 철학자(푸코).

철학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은 확실히 호기심어린 시선을 회피할 수 없다. 더구나

헬퍼린은 푸코철학의 진정한 정치적 메시지는 무엇이며, 그것이 동성애운동과 어떤 내면적 연관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헬퍼린의 논의는 게이문화에 대해 푸코이론이 가진 함의를 분석한다. 그 시도는 푸코에 대한 그간의 논쟁을 비판적, 생산적으로 바라보고자 함이다.



‘성’을 철학적 역사적으로 살핀 본격 연구서들도 국내에 많이 소개되고 있다.

그가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성 연구자이니 말이다. 하지만 호기심에 더하여 진지함을 갖고 물어보자. 동성애와 철학자 또는 그의

학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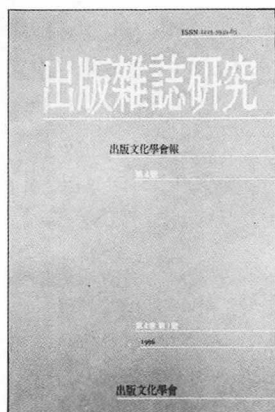
다매체 경쟁시대의 출판과 독서문화

《출판잡지 연구》 제4호 발간

출판문화학회(회장 전영표)가 발간하는 학회지 《출판잡지연구》 제4호가 나왔다. 이 번호에는 신구전문대 이동성 교수의 《한국 출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비롯해, 《도서잡지의 음란에 관한 연구》(박동해) 《일제하 불법(佛法) 연구회 회보에 관한 연구》(박영학) 《우리나라 CATV 정착이 독서에 미치는 영향》(김종원, 이문학)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인쇄매체의 변화 양상 고찰》(이용준) 《잡지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로랜드 E. 윌슬리) 등의 논문이 실렸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CATV 정착이 독서에 미치는 영향》은 뉴미디어 시대에 CATV가 몰고온 문화적 파급효과를 우리나라 독서환경 속에서 살펴보고 있다.

신정보기술매체 가운데 특히 방송 영상매



체는 대중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이것이 독서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TV보급이 출판량의 양적 증가를 촉진시켰다는 인식도 한편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출판문화학회/A5신/136면/6000원

철학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한 예는 밀러의 《푸코의 열정》일 것이다.

동성애와 철학의 관계

밀러는 에리봉이 프랑스의 법적 한계 때문에 그의 전기에서 서술하지 못한 푸코의 성생활, 그리고 그것과 철학 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그러나 밀러는 스트레이트(straight)이다. 그가 이 문제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었을까? 동성애자인 헬퍼린은 《성 푸코》 중의 ‘묘사가능한 푸코’에서 바로 이 문제에 도전한다. 헬퍼린의 밀러 비판의 요점은 밀러가 푸코의 성생활을 거짓되게 묘사했다는 것이 아니다. 즉 푸코가 그의 철학을 통하여 실천하고자 했던 비동조의 정치를 밀러는 푸코의 예외적이고 기질적인 특성으로 꾸준히 환원하며, 결과적으로 비정치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밀러는 바로 푸코가 비판하고자 한 정상화(normalization)라는 훈육권력의 테크닉

을 통하여 푸코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밀러의 전기 서술의 방식 안에서 동성애 공포증을 읽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푸코의 열정》은 실은 푸코의 이론이 가진 전복성을 순치하고 개인화하고 병리화하려는 ‘밀러의 열정’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헬퍼린은 “미셸 푸코의 퀴어(queer) 정치학”에서 이런 전기적 접근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제시한다. 즉 푸코 철학의 진정한 정치적 메시지는 무엇이며, 그것이 동성애운동과 맺고 있는 내면적인 연관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의 역사 1》이 AIDS시대의 동성애자들에게 왜 정치적 정전(cannon)이 되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세가지 물음으로 논의 전개

그의 논의는 세가지 물음을 축으로 해서 움직인다. 우선 권력은 도처에 있으며, 따라서 저항도 도처에 있다는 푸코의 진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으로 푸코는 현대의 규율권력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성문화를 연구하면서

민중운동 · 생명운동 · 자치운동

김지하의 《생명과 자치》를 읽고

김열규 · 인제대 국문과 교수

또 하나의 규율이랄 수 있는 ‘자아의 배려’를 왜 찬양하였는가?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20세기말 동성애에 대한 푸코의 논의와 어떤 내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헬퍼린은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 푸코의 논의들에 대한 기왕의 오해들을 해소하며 푸코의 이론이 가진 일관성을 재구성해낸다.

그에 의하면 우선 푸코는 권력관계와 지배를 구분하였다(이 점은 후기 푸코의 막스 베버 독서에서 얻어진 통찰로 보인다). 권력관계는 비록 불균형하다고 해도 전도가능한 것이며,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전략들의 체계이다. 이에 비해 지배는 이 권력관계를 위치 전도가 불가능할 정도로 저항의 가능성을 축소시켜 나간 불평등의 상태이다. 그러므로 푸코가 현대 규율권력을 비판한 것은 그것이 야기하는 정상화가 함축하고 있는 지배 때문이지, 그것이 규율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 때문이 아니다.

논쟁에 대한 생산적 개입

따라서 그가 고대의 성문화를 높게 평가하며 재구성하고자 한 것은 바로 거기서 정상화없는 규율의 가능성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고대의 금욕적 성윤리가 그 자체로 오늘날의 게이문화에 전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푸코에 의하면 오늘날의 게이문화는 금욕적 자기수련을 수행하지만 그것은 새도매저키즘이나 피스트-펀킹(fist-fucking)같은 실천에서 보듯이 새로운 쾌락을 발명하고 실천하는 자유의 행사를 축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헬퍼린의 논의는 물론 게이문화에 대해서 푸코의 이론이 가진 함의를 분석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시도는 푸코를 게이들만의 성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논의는 앞에서 언급된 내용에서 보듯이 푸코에 대해서 그간 있어왔던 많은 논쟁들에 대한 비판적이고 생산적인 개입이기도 하다. ❖

《Saint Foucault : Toward a Gay Hagiography》(Oxford University Press, 1995)

필자가 상향(上郷, 절대로 낙향이 아닌)한 이듬해 김지하씨의 기습을 받았다. 아무 기별도 없이 느닷없이 필자의 등지에 불쑥 현신한 것이다. 그 이전에 서로 상면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기에 기습의 강도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담양껏 한 광우리를 내려놓으면서 그가 한 말.

“이제 김선생은 원도 한도 없겠습니까.”

시구절이라도 읊는 것 같았다. 한려수도의 안자락, 자란만 물빛에 그의 눈길을 쫓은 채, 그러면서 물었다.

“이렇게 고향에서 등지틀기에 성공한 까닭은 뭡니까?”

전격적으로 해남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이내 서울로 뒷걸음쳐 되돌아간 그의 당시 행적을 알고 있었기에 물음의 속뜻을 헤아릴 수 있었다.

“이게 성공이라면 내가 언제나 역사나 사회현실의 뒤란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내가 실패자(또는 실패자라고 자처한 당사자)에게 한 말이다. 그것은 김지하씨가 언제나 역사의 한복판, 그리고 사회현실의 앞장에 좌표를 두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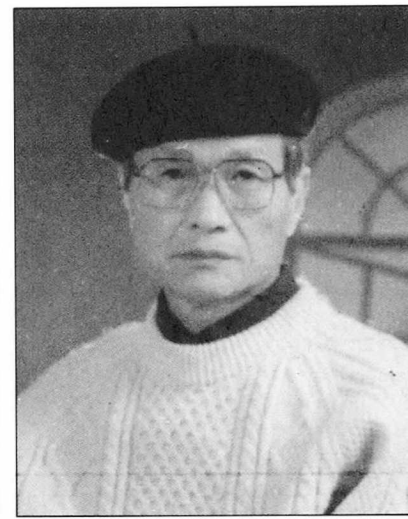
두에 두고서 한 말이다. 그때로서는 옳은 대답이요 혼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 《생명과 자치》를 대강 훑어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 했다. 왜냐하면 자연과 우주까지도 또 다른 역사요, 현실로 삼아서 거기 스스로의 토포로지를 정하고자 하는 김지하씨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 글은 김지하씨의 기습을 받았을 당시 내가 그에게 건넨 답이 잘못됐음을 정정하는 글이 될 것이다. 반독재투쟁을 포함한 민중운동에 헌신한 그가 환경운동을 포함한 ‘생명의 사상 운동’으로, 그리고 자치운동으로 옮겨간 그 궤적(軌跡)은 무엇이란 말인가?

항간에서는 그것을 두고 그가 개가(改嫁), 그것도 생개가(生改嫁)나 한 듯이 말하는 사람이 없지도 않은 모양이다. 하지만 사람도 물처럼 흐르는 것임을 어찌하라. 뿐만 아니라. 이상적으로 한 인간의 삶은 궤적을 그려야 하고 궤적은 당연히 변화와 전신(轉身)을 내포하고 있음 또한 어찌하라.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니기를, 그렇



김열규 교수.

듯이 내일의 내가 이미 오늘의 내가 아니기를 빌고 또 실천코자 함이 어찌 괴테 혼자만의 일이라. 하지만 더불어 변화 속에 지속성이 없으면 그 또한 삶의 궤적이라 부를 수 없음에도 유념해야 한다.

‘민중운동-생명운동-자치운동’ 이 셋은 개인 김지하의 삶의 통시적인 추이(이동)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셋은 그것들 사이에 공시적인 동질성이 있다. 그래서 필경 같은 패러다임에 속한 것들끼리의 서로 다른 변이(變異)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이 셋의 묶음을 ‘독재-경제주의(환경과피를 포함함)-중앙집권’이라는 3개항의 묶음과 대조시켜 보면 확연히 알게 된다. 그것들은 모두 살생자요 살개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가 도사(道士)나 신선같은 인상을 부분적으로 풍기고 있음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 인상을 지우지 못한다면 김지하씨는 스스로 또 다른 실패자(?)로 자처하게 될 위험성이 있음을 굳이 강조하고 싶다. 부디 그가 투사로서 펼칠 둘째 라운드에서도 승리하기 바란다. ❖

출 / A5신/548면/12,000원

